

협회소식

본회 회장 이·취임식 성황리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동 소재 aT센터 5층 대회의실

에서 정부기관 및 전양돈관련 단체, 업체, 학계, 연구회, 조합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영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선 없이 뜨거운 환영으로 대한양돈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믿음으로써 맡겨 준 전국의 모든 양돈인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대에 부응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84페이지 참조)

최영열 회장, "양돈산업 청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본회,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본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해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기자간 담화를 개최했다.

최영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바라는 요구와 소망을 우선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양돈농가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과 양돈산업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90페이지 참조)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큰 동참 속에 마감

- 본회, 명진보육원에 돼지고기 전달



▲ 지난 3월 8일 본회는 <명진보육원>을 방문해 돼지고기 140kg을 전달했다.

본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3월 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명진보육원 (이사장 황용규)을 방문하고, 황용규 이사장에게 돼지고기 140kg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행사를 최종 마감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7페이지 참조)

본회, 향후 돈열 발생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지도 철저 요청

본회는 최근 농림부에 돈열 발생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철저히 부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돈열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6일 충북 영동에서 돈열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중인 필리핀 정부가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돼지고기의 수입을 거부하는 등 한두 농가의 소홀한 방역과 예방접종 미비로 국내 양돈산업 및 전국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돈열 발생농장에 대해 철저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과,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돈열 항체율이 낮은 양돈농가와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 돈열 예방접종 및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도 및 시·군을 통해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돈열 전파종돈장 철저한 재조사 요청

- 검찰 지난 1월 30일 '혐의 없음' 처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지난해 3월 김포시청이 관내 돈열 발생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와 ‘사체의 처분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종돈장인 S축산의 사법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혐의여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에 본회는 경기도에 대해 돈열 재발 방지

를 통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돈업계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S축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수과원의 2002~2003 돈열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축산 돼지 분양농장 81개 중 38개 농장(46.9%)에서 발생했으며, 44개 분양 농장의 입식돈 및 동거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입식돈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중 32개 농장(82.1%)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이중 20개 농장(51.3%)은 입식돈에서만 양성이 나타나는 등 다수의 양돈장이 S축산의 돈열 감염 후보 돈을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S축산 고소·고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폭설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지원 요청

- 담보 부족 농가에 특례보증 자금 지원 확대돼야

본회는 지난 3월 4일과 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특히 본회는 일반 정부자금의 경우 지난 해 계속된 저돈가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양돈농가들이 담보가 없어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려운 양돈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자금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 사육규모에 따른 특례보증 자금 지원 확대와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피해농가에 대한 축산경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조치를 해주고, 중·고생 학

자금 면제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특별재해대책 지역’ 선포에 따른 각종 지원과 기타 양돈농가의 빠른 피해복구 및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폭설피해를 조사한 결과 충북·충남·경북 등의 13개 지부 200여 회원농가에서 돈사 및 퇴비사 등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 가축공제 보상 범위 확대 강력 요청

- '폭설' 피해 가축공제 대상서 제외돼

지난 3월 4~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돈사가 가축공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한 양돈농가들이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돈사에 대해 보상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는 축산(화재 및 풍수재)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화재나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흉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토록 돼 있으나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6항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와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돈사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양돈농가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각 지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접수, 정부와 농협에 피해 보상

범위 확대와 이에 대한 특약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해야”

국내 양돈농가들은 본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할 사업에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본회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양돈협회가 2004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총 711명이 응답한 결과 △대정부 정책, 제도개선 47.5% △분뇨처리 기술 개방사업 22.1% △질병, 위생 방역관리사업 12.4% △소비 홍보 등 대외 협력사업 7.6% △유통개선 사업 7.2% △농가 등 계도, 교육사업 3.2% 순으로 대답했다.

양돈농가, 철저한 농장방역 최우선으로 인식

국내 양돈농가들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방역의 철저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본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최근 빈발하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가장 철저를 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총 257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 △농장방역 철저 43.6% △질병 차단 시스템 연구·개발 27.6% △정부의 방역정책 철저 14% △국경검역 철저 11.3% △지자체의 방역관리 철저 3.5% 순으로 대답했다.

이 결과 양돈농가들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농가가 스스로 자신의 농장부터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악성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한 차단시스템을 연구·개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2백만명 돌파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방문자수가 지난 3월 10일자로 2백만명을 넘어섰다. 본회가 양돈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양돈농가에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 10월 첫 개설·운영해오고 있는 홈페이지가 5년 5개월만인 2004년 3월 10일 방문자 수가 2백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003년 1월 25일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급속히 증가해 1년여만에 200만명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하루 동시접속자수가 3천여명에 이르는 등 양돈관련 정보제공의 메카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회는 앞으로도 양돈분야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다 알찬 양돈정보와 보다 빠른 속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회, 양돈산업 현안문제 토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16일(화) 오전 7시 팔레스 호텔 2층 '다봉'에서 최영열 회장, 윤봉중 축산신문 사장, 윤희진 다비육종 대표, 정영철 정P&C연구소장, 정찬길 건국대 교수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최근의 양돈산업 현안문제 해결 방안 등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동영상 홍보자료 제작

본회는 지난 2월 19일 개최된 제25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맞춰 지금까지 본회가 추진한 사업 등을 모은 10분 분량의 홍보용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본회는 홍보 동영상 자료를 대외 홍보행사 등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엘랑코 롤 오코만 아시아담당 이사 본회 방문



▲최측부터 본회 김동성 전무,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예재길 상무, 최영열 회장, 롤 오코만 이사, 한국 엘랑코동물약품 이순실 사장, 송영덕 영업부장

송영덕 영업부장등 4명은 지난 3월 11일 본회를 방문해 최영열 회장을 만나고 세계 양돈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갔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0만 3천원

지난 2월 20일(금)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4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0만3천220원인 것

본회,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집 추가 제작·배부

본회가 최근 제작해 배부한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 책자에 대한 농가 및 업계의 관심이 높고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음에 따라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집'을 추가로 제작해 본회 회원 및 유관기관·단체·업체와 추가로 요청한 본회 지부(회) 등에 배부키로 했다.

이 책자에는 현재 농가에서 처리하는 분뇨처리 우수사례를 퇴비 및 액비로 처리하는 농가와 액비화하는 농가, 퇴비 및 정화 처리하는 농가, 퇴비 및 정화방류하는 농가 등으로 구분해 정리되어 있다.

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2두를 비롯 총 119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118두가 낙찰, 1두가 유찰되었으며, 수컷 평균 낙찰가는 89만5,641원(78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2만3,000원(40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3점, 슈퍼돈)이 충남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14번지 배상종(충남AI센타)씨에게 최고가인 3백70만원에 낙찰됐다.

제1검정소, 2003년도 최우수종돈장에 포천종돈 선정

- 2월 22일 제235차 경매시 최우수종돈장 시상 및 경품 기증 예정

본회 제1검정소(소장 강왕근)는 2003년도 한해 동안 실시한 종돈능력검정 결과 최우수 종돈장에 포천종돈(대표 양상렬)을 선정하고, 듀록 부문 최우수 종돈장에 문경FINE(대표

이경록), 랜드레이스 부문 최우수 종돈장에 호박종돈(대표 김창환), 요크셔 부문 최우수 종돈장에 성현농장(대표 김영석)을 각각 선정했으며, 검정위원회에서는 모범종돈장으로 경기양돈(대표 이운원)을 선정했다.

이들 종돈장들은 본회가 검정돈 출품종돈장들의 종돈개량과 출품의욕 고취를 위하여 2003년 1년 동안 슈퍼돈 및 최우수돈 수상횟수, 선발지수, 합격두수, 합격률, 농장검정두수, 출품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은 2월 22일(월) 제1검정소 제235차 검정돈 경매일에 실시하며 수상기념으로 기념품과 경매돈 구입자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본회, 2검 선정 2003년 최우수 및 우수종돈장 시상

본회 제2검정소(경남 하동)는 지난 3월 10일 제163차 경매 행사에서 제2검정소가 선정한 2003년 최우수 종돈장인 보광축산(대표 김성찬) 및 듀록 부문 우수종돈장인 삼광종돈(대표 박삼곤), 문경FINE(대표 이경록)과 랜드레이스 부문 우수종돈장인 다원종돈(대표 양상열), 요크셔 및 농장검정 부문 우수종돈장인 풍원종축(대표 최종대)에 대해 시상을 했다. 본회 최영열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종돈장들이 양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히 상당히 중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종돈능력 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매돈을 구입한 농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드럼세탁기 14대를 증정하는 등 구입자 보은 행사도 가졌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1백3만5천원

지난 3월 10일(수)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1백3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2두를 비롯 총 159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117만3,458원(107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5만385원(52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성현농장 듀록 수컷(선발지수 268점)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390-1번지 박삼곤(경남AI센터)씨에게 최고가인 7백만 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기도협의회장에 김건호 여주지부장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정기 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광우 도협의회장 후임으로 김건호 여주지부장을 신임 도협의회장

김건호 도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도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김건호 도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국내 양돈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이 지역 양돈인들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구제역, 돈열 발생 방지를 위해 각 지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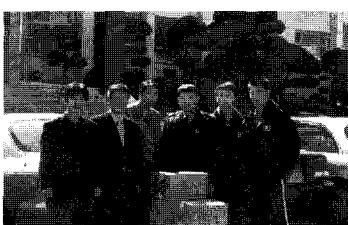
경기도협, 도내 불우시설에 돼지고기 5,000kg 전달

경기도협의회(회장 이광우)는 지난 1월 15일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행사를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번지 나눔의 집 등 도내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98개소에 돼지고기 5,000kg을 전달했다.

경남도협, 양돈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할 것 등 결의

경남도협의회(회장 이용모)는 지난 3월 16일 경남 창원 드래곤호텔 대연회장에서 ‘2004년 경남 양돈인대회’를 개최했다. 경남 양돈인들의 뜻을 모아 양돈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본회 최영열 회장 및 이용모 경남도협의회장 등 경남의 양돈지도자 및 양돈인들과 관련업계, 학계, 도축장 대표, 관련 기관 단체장 등 축산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되었다.

경남도협, 해양경찰청 위로 방문



▲박창식 이사, 이용모 경남도협의회장, 함연수 함안지부장(좌측부터)

경남도협의회 이용모 회장과 박창식 이사, 함연수 함안지부장 등은 지난 3월 2일 구제역 재발 위험시기가 다가올에 따라 경남 지역 밀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통영 해양경찰서를

방문하고 불법축산물 밀수 방지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해경대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국산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고성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돼지고기 전달

고성지부(지부장 임순조)는 지난 2월 1일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행사의 일환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해 고성 관내의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지급하고, 이들이 올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당진지부, 관내 불우시설 등에 돼지고기 전달



당진지부(지부장 차선수)는 지난 2월 13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소망의 집 등에 돼지고

기 130여만원어치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등 양돈인들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산청지부, 창립22주년 기념 및 전국 최우수지부 수상자축행사 개최

경남 산청지부(지부장 김광규)는 지난 3월 3일 삼겹데이를 맞이하여 창립22주년 기념 및 전국 최우수지부 수상자축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청군수와 군의회 의장, 의원 및 각 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 많은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초대 지부장인 민영만씨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하고, 산청축협에는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 그동안 지부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주지부, 눈썰매장 돼지고기 무료 시식행사 성료

영주지부(지부장 김익현)는 지난 2월 8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소재 「소백산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러 나온 주부와 청소년 등 시민들을 상대로 돼지고기 전·후지로 만든 “돼지고기 주물럭” 1,000명분을 만들어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전지, 후지, 등심 등을 이용한 돼지고기 요리방법 등을 소개한 요리책자 및 홍보물 800매 등을 나눠주는 등 돼지고기 소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성지부, 정기총회 및 구제역 방역 교육 개최

본회 안성지부(지부장 김상수)는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김상수 지부장 등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구제역 방역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연구실 박종현 실장으로부터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센터 김영태 연구원으로부터 봉독이용 방법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또한 2003년도 감사 보고와 2004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를 가졌다.

군위지부, 1/4분기 정기회 개최

경북 군위지부(지부장 정장규)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군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지부장 등 지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농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PMWS(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농가의 현황과 대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해지부, 자조금사업에 적극 협조 키로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지난 2월 25일 부경양돈농협 3층 회의실에서 지부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 수지결산 및 2004년 수지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두당 400원씩 거출되는 자조금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김해지역 축산 연합 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지부 사무실 이전 등에 관해 토의를 했다.

신임 진천지부장에 이상기씨



이상기 진천지부장
진천지부는 지난 2월 10일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장 및 회
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전홍우 지부
장의 후임으로 이상기씨를 신
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상기 지부장은 진천 양돈영농조합 이사와
진천 축산업 협동조합 감사, (주)오비티 상임

감사를 맡고 있으며, 양돈 농장인 (주)애니피 그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신임 영일·포항지부장에 예효준씨



예효준 영일·포항지부장

영일·포항지부는 지난 2월 15일 지부사무실에서 지부장 및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에 예효준씨를 선출했다. 또한 김창기씨를 부지부장에 지승현씨를 감사에 박대식씨를 총무로 선출했다.

신임 서남지부장에 손용조씨



손용조 서남지부장

제주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윤화 지부장의 후임으로 손용조씨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부지부장에 강희은, 이성순씨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지난 2003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받고, 회계 결상을 승인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협의하고 승인했다.

신임 손용조 지부장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서서 흥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목포·신안지부, 주소변경

■변경주소 : 전남 목포시 상동 753-3번지
목포·신안지부 양돈